

# 일본사회에서의 한류열풍으로 인한 한국인과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변화

## -연령별 분석-

황 혜 경\*

(e-mail : hhk5500@daum.net)

---

### 目 次

---

- 1.서론
  - 2.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 3.조사 결과
  - 4.연령별 고찰
  - 5.결론
- 
- 

## 1. 서론

일본의 한류는 NHK방송국에서 한국드라마 겨울연가가 방영된 것이 계기가 되어, 드라마는 물론 한국영화, 그리고 배우, 가수들까지 일본에 진출하여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한류열풍에 가담하고 있다. 2004년 일본 NHK 위성방송에서 무려 여덟 시간에 걸쳐서 일본여성들이 왜 한류에 젖는지에 관해서 한류에 대한 특집방송을 할 정도로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다. 일본사회를 뒤흔들 정도의 인기인 한류에 동참하는 일본인들도 많은 반면에, 한류에 열광하는 사람이 싫어서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의 혐 한류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에서의 한류의 인기는 한국 매스컴을 통해서도 흔하게 볼 수 있다. 한류 스타의 열렬한 아줌마 팬들은 일본에서 한국까지 와서 한류스타의 공식 스케줄을 따라다니는가 하면, 한류스타의 특별한 이벤트에는 언제나 일본 팬들이

---

\* 남서울대학 일본학 강사

자리할 만큼 대단했다.

또한, 드라마 촬영지나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한 전문투어가 생겨서 매일 1500명 정도 일본아줌마들이 왔다갈 정도로 한류는 일본의 하나의 사회현상이고,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한류열풍은 일본사회에서 일본인의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 논문(황 2008)에 의하면, 한류열풍은 일본사회에 있어서 일본인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류가 일본인에 있어서 한국·한국인에 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며, 한국·한국인에 대해 더욱더 친근감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한류가, 1919년 한일합병 전후부터 1세기가 넘도록 일본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생활하고 있는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도, 무관심에서 더욱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친근감을 느끼지 않았던 일본인들도 친근감을 느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류는 일본인들에게 한국·한국인·재일코리안 대한 인식의 변화나 한국문화에 관심의 동기를 부여하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정치적인 문제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류에 관한 선행연구는 한국드라마에 관한 연구(신 2005), 한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손 2004, 호사카 2005), 한국관광에 관한 연구(채 2006), 한류로 인한 문화 관광객 유치, 그것으로 인한 한국 상품판매 및 소비자 지출구조에 관한 연구(허 2006), 한류를 통한 한국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김 외 1인 2006)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류와 재일코리안을 연관지어서 다룬 연구는 많이 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연령별로 비교 고찰한 논문은 볼 수가 없다. 이 논문은 전 논문(황 2008)에 이어서, 한류로 인한 일본인의 한국인과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변화를 연령별로 나눠서 분석한 것이다. 일본사회에 있어서 일본인의 연령에 따라서 한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류이전과 한류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실증적 데이터를 이용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류의 개념 및 일본 내 한류의 현황에 관한 것은 황(2008)참조.

## 2.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 (1) 조사방법 및 대상

일본 관서지방(오사카, 나라지역)의 일본인 312명을 대상으로, 한류로 인한 일

본인의 한국인과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앙케트조사를 실시했다.

나라에서 나라여자대학교와 나라현립대학교를 방문해, 학교식당 등을 이용, 직접 앙케트 설문지를 배부·회수했다. 또한, 나라 아동상담소와 나라 공민회관을 방문해, 그곳에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회수했다.

그리고, 오사카에서 관서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 설문지를 배부·회수했다. 그리고 쓰루하시 중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앙케트를 실시했으며, 오사카시의 산손지라는 절을 방문해, 그 곳에 방문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앙케트를 실시했다. 이외에도 본인이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몇 명에게도 앙케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12부를 회수했고, 그 중에서 불성실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하고 302부(오사카:123부, 나라:179부)를 유효한 설문지로 확보했다.

조사 방법은 2007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앙케트조사를 실시했고, 인터뷰조사도 했다.

## (2) 조사항목

조사항목으로는 일본사회의 한류로 인한 일본인의 한국인과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그것에 관련해 크게 4가지로 나뉘었다. 우선, 기본사항 및 한국·한류에 관련된 항목으로 성별, 연령, 한국의 관심정도, 한국 관심시점, 한류에 대한 인지도, 한류의 단어 의미, 한류의 관심정도, 한류가 일어난 시점의 8항목, 그리고 한국인에 관한 항목으로 한국인 인식(한류이전·한류이후), 한국인의 친근감 정도(한류이전·한류이후), 한국인이 이웃으로 이사 온다면(한류이전·한류이후)의 3항목, 재일코리안에 관련된 항목으로 재일코리안의 인식(한류이전·한류이후), 재일코리안의 친근감 정도(한류이전·한류이후), 주변의 재일코리안이 있다면 사이좋게 지낼 것인가(한류이전·한류이후)의 3항목, 그리고 한국에 관련된 역사·정치·식문화에 관련된 항목으로 한·일 관계(한류이전·한류이후), 한국 역사에 관한 관심도(한류이전·한류이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한류이전·한류이후), 독도 소유권 문제 일본입장(한류이전·한류이후), 한국요리 섭취도(한류이전·한류이후), 한국김치 선호도(한류이전·한류이후)의 6항목, 총 20항목으로 설문지를 각각 한류이전과 한류이후로 나눠서 작성했다.

## (3) 분석방법

조사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 12를 사용하여, 위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령별로 항목 간의 관련성을 보기위해서 카이

스퀘어 검증에 의해서 분석하였다.

### 3. 조사 결과 및 고찰

#### (1) 기본사항 및 한국·한류에 관한 사항

기본사항으로 성별과 연령을 보면, 성별은 여성이 81%, 남성이 19%를 차지했다. 연령을 보면, 10대가 19%, 20대가 35%, 30대가 8%, 40대가 14%, 50대가 14%, 60대 이상이 11%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10대와 20대는 대부분 대학생으로 20대 전후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연령과 다른 항목과의 관계를 보는데 있어서 3개의 층으로 나뉘어서 분석하기로 한다. 젊은 층인 10대와 20대를 묶어서 10-20대, 중년층인 30대와 40대를 묶어서 30-40대, 노년층인 50대와 60대 이상을 묶어서 50-60대 이상으로 나뉘어서 분석하기로 한다<sup>1)</sup>.

표1 한국의 관심정도·한국 관심 시점

		한국의 관심정도					한국 관심 시점			
		관심 있다	조금 관심 있다	뭐라고 말할수 없다	별로 관심 없다	전혀 관심 없다	1988년 올림픽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겨울연가 시청 이후	기타 <sup>2)</sup>
연령	10-20대	19.0%	39.9%	20.3%	15.8%	5.1%	6.3%	34.4%	32.3%	27.1%
	30-40대	35.5%	33.9%	11.3%	16.1%	3.2%	8.6%	28.6%	34.3%	28.6%
	50-60대이상	49.3%	29.6%	12.7%	5.6%	2.8%	17.2%	10.3%	50.0%	22.4%
	전체	29.9%	36.1%	16.5%	13.4%	4.1%	10.1%	25.9%	38.1%	25.9%

\*\*\*P<0.001

\*\*P<0.01

일본인의 연령에 따른 「한국의 관심정도」와의 관계를 보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과 같이 「관심 있다」가 거의 50%로 「50-6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40대」가 36%, 「10-20대」 20% 순이고, 「전혀 관심 없다」와 「별로 관심 없다」를 보면 50-60대가 가장 적었고, 30-40대와 10-20대는 근소한 차이로 10-20대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10-20대」에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에 대한 관심정도를 보면 전

1) 이번 조사에서 연령 비를 보면 10-20대가 43%, 30-40대가 22%, 50-60대가 25%로 10-20대가 다른 연령대 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비율이 가장 적은 30-40대인 22%는 총 조사인원 302명중 66명으로 이 수치는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수치이다.

2) 「기타」로는 「어릴 적에」, 「한국 친구가 생기고 나서」,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한국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서부터, 「한국 김이 맛있어서」 등의 의견이었다.

체적으로 관심이 있는 쪽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50-60대에서 가장 관심이 많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다음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한국 관심 시점」을 보기로 한다. 또한, 「연령」과 「한국 관심시점」과의 관련이 있는지도 보도록 한다. 표1을 보면 「50-60대 이상」은 「겨울연가 시청이후」가 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1988년 올림픽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순이었다. 「30-40대」의 경우는 「겨울연가 시청이후」가 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와 「1988년 올림픽 이후」가 거의 각각 30%를 차지, 다음이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순이었다. 그리고 「10-20대」를 보면 다른 연령대(30-60대)와 달리, 한국 관심 시점이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가 34%로 가장 많았고, 근소한 차이지만 다음으로 「겨울연가 시청이후」 순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을 전 세계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표1과 같이 젊은 층인 「10-20대」의 경우, 1988년 서울올림픽 때는 거의 20년 전으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시기로, 10-20대에게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 세계에 한국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2002년 한·일 월드컵은 10-20대가 고등학교 이상의 시기로 한국에 관심을 갖게 하는 큰 계기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겨울연가 시청도 최근 4년 전후의 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30-40대」의 경우도, 1988년 서울올림픽 때는 초등학교 이하의 시기로 서울올림픽이 큰 이슈가 되지 못했고, 2002년 한·일 월드컵과 겨울연가 시청이후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편, 「50-60대 이상」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충분히 관심을 갖는 큰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표2 한류에 대한 인지도 · 한류의 단어 의미

		한류에 대한 인지도		한류의 단어 의미			
		들어 본 적 있다	들어 본 적 없다	한국드라마 붐	한국문화 붐	기타 (음식 등)	모르겠음
연령	10-20대	100.0%	0.0%	73.9%	19.7%	5.7%	0.6%
	30-40대	98.4%	1.6%	78.7%	14.8%	1.6%	4.9%
	50-60대이상	94.4%	4.2%	70.4%	16.9%	5.6%	7.0%
	전체	98.3%	1.4%	74.0%	18.0%	4.8%	3.1%

일본사회가 떠들썩할 정도 한류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일본인들은 과연 한류라는 용어를 들어 본 적이 있는지, 또한 그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연령별로 「한류에 대한 인지도」와의 관계를 본 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관계없이 95%이상이 들어 본 적이 있었다. 그러면 일본인들은 한류를 과연 어떤 의미로 파악하고 있는지 표2를 보면 한류의 의미를 연령층에 관계없이 「한국드라마 붐」이라고 70%이상이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은 일본인들이 한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보기로 한다.

연령별로 「한류의 관심정도」와의 관계를 표3을 통해 보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의 경우 「그다지 관심 없다」가 46%로 가장 많았고, 「전혀 관심 없다」까지 합하면 65%정도가 관심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30-40대」의 경우는 「그다지 관심 없다」가 38%, 다음으로 「조금 관심 있다」가 30% 정도 였다. 게다가 「전혀 관심 없다」와 「그다지 관심 없다」를 합쳐서 보면 관심 없다고 51%, 관심 있다고 49%로 거의 비슷했다. 「50-60대 이상」의 경우, 「그다지 관심 없다」가 35%, 「매우 관심 있다」가 30% 순이었다. 「매우 관심 있다」와 「조금 관심 있다」를 합친 관심 있다고와 「그다지 관심 없다」와 「전혀 관심 없다」를 합친 관심 없다고로 나뉘어서 보면 관심 있다고 57%, 관심 없다고 43%로 관심 있다고 많은 것으로 나왔다. 이 표를 통해서 한류의 관심은 50-6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 10-20대가 가장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한류가 일어난 시점에 관해서 연령과의 관계를 보기로 한다.

표3과 같이 연령과 한류가 일어난 시점 간에는 관련성이 나타났다. 「10-20대」의 경우는 95%가 「겨울연가 시청이후」의 의견이었고, 「30-40대」는 「겨울연가 시청이후」가 80%, 다음으로 「기타」의견과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50-60대」의 경우는 「겨울연가 시청이후」가 83%, 다음으로 「기타」가 많았다. 그리고 전 연령대에 있어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표3 한류의 관심정도 · 한류가 일어난 시점

		한류의 관심정도				한류가 일어난 시점			
		매우 관심 있다	조금 관심있다	그다지 관심 없다	전혀 관심 없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겨울 연가 시청 이후	기타 <sup>3)</sup>
연 령	10-20대	8.3%	27.4%	45.9%	18.5%	0.0%	2.0%	94.6%	3.4%
	30-40대	19.7%	29.5%	37.7%	13.1%	0.0%	6.1%	79.6%	14.3%
	50-60대이상	29.2%	27.8%	34.7%	8.3%	0.0%	0.0%	82.5%	17.5%
	전체	15.9%	27.9%	41.4%	14.8%	0.0%	2.4%	88.9%	8.7%

\*\*P<0.01

\*\*P<0.01

3) 여기에서 「기타」는 「잘 모르겠음」, 「나도 모르게」, 「TV에서의 김치소개이후」, 「한국요리 붐이 일어났을 때 썸 등의 의견이었다.

않았으며, 50-60대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도 한류는 없었다고 생각했다.

## (2) 한국인의 인식에 관한 사항

지금부터는 연령과 각 항목과의 관련성을 보고, 또한, 한류이전과 한류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연령」과 「한국인의 인식(한류이전)」과의 관계를 보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와 같이 「10-20대」의 경우, 한류이전의 한국인의 인식을 보면 「관심 없음」이 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긍정적」이 34%를 차지했다. 「50-60대이상」은 「관심 없음」이 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긍정적」이 39%를 차지했다. 반면에 「30-40대」의 경우는 「긍정적」이 42%로 가장 많았고, 「관심 없음」이 37%로 많았다. 한류이전의 한국인의 인식은 10-20대와 50-60대의 경우는 관심 없음이 많았고, 30-40대는 다른 연령에 비해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왔다.

표4 한국인 인식(한류이전·한류이후)

		한국인 인식(한류이전)					한국인 인식(한류이후)				
		매우 긍정	긍정적	관심 없음	부정적	매우 부정	매우 긍정	긍정적	관심 없음	부정적	매우부정
연령	10-20대	0.6%	34.2%	58.2%	5.1%	1.9%	2.5%	63.1%	29.3%	5.1%	0.0%
	30-40대	11.9%	42.4%	37.3%	3.4%	5.1%	16.9%	55.9%	18.6%	3.4%	5.1%
	50-60대이상	3.0%	39.4%	50.0%	6.1%	1.5%	14.5%	66.1%	17.7%	1.6%	0.0%
	전체	3.5%	37.1%	51.9%	4.9%	2.5%	8.3%	62.2%	24.5%	4.0%	1.1%

\*\*P<0.01

\*\*P<0.01

표4의 「연령」과 「한국인의 인식(한류이후)」과의 관계를 보면 관련성이 나타났다. 「10-20대」의 경우는 「긍정적」이 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심 없음」이 29%로 많았다. 「30-40대」와 「50-60대 이상」의 경우, 「긍정적」이 각각 56%, 66%로 많았고, 다음으로 「관심 없음」이 19%, 18%, 「매우긍정」이 17%, 15% 순이었다.

30-40대와 50-60대의 경우는 10-20대와 비교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고, 관심 없음은 10-20대의 젊은 층이 많았다.

한류이후의 한국인의 인식을 한류이전과 비교해 보면(표4), 「10-20대」의 경우 한류이전과 비교해 「매우긍정」이 소폭증가, 「관심 없음」이 급감했고, 「긍정적」이 급증해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부정적」은 한류이전과 한류이후에 차이가 별로 없었다. 「30-40대」는 한류이전과 비교해 「관심 없음」이 줄은 반면, 「매우긍정」과 「긍정적」이 증가 했으며, 「부정적」은 변화가 없었

다. 「50-60대 이상」은 「관심 없음」이 대폭하락, 「매우긍정」과 「긍정적」이 대폭 상승해 타 연령대와 비교해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부정적」도 큰 폭으로 하락했음을 알 수가 있다. 50-60대 이상이 이렇게 대폭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한류, 즉 겨울연가 드라마의 영향이 크게 미쳤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표4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류가 한국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일본인들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나, 50-60대를 제외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표5 한국인의 친근감 정도(한류이전 · 한류이후)

		한국인의 친근감 정도(한류이전)				한국인의 친근감 정도 (한류이후)			
		친근감을 느낀다	조금 친근감을 느낀다	별로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친근감을 느낀다	조금 친근감을 느낀다	별로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연령	10-20대	7.0%	43.9%	36.9%	12.1%	14.6%	63.1%	15.3%	7.0%
	30-40대	33.9%	37.3%	25.4%	3.4%	39.0%	44.1%	13.6%	3.4%
	50-60대이상	17.7%	35.5%	33.9%	12.9%	40.3%	46.3%	9.0%	4.5%
	전체	15.1%	40.6%	33.8%	10.4%	25.8%	55.1%	13.4%	5.7%

\*\*\*P<0.001

\*\*\*P<0.001

다음은 「연령」과 「한국인의 친근감 정도(한류이전)」와의 관계를 보면, 표5와 같이 두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는 「조금 친근감을 느낀다」가 44%, 「별로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가 37%, 「친근감을 느낀다」와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를 합쳐서 보면 친근감 쪽이 51%, 친근감이 없는 쪽이 49%였다. 「30-40대」는 「조금 친근감을 느낀다」가 37%, 「친근감을 느낀다」34% 순으로 많았고, 합쳐서 71%를 차지했다. 그리고 「별로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와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를 합쳐서 29%를 차지했다. 「50-60대 이상」은 「조금 친근감을 느낀다」가 36%, 「별로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가 34%였다. 친근감 쪽을 합쳐서 보면 53%, 친근감이 없는 쪽으로 보면 47%였다. 연령별로 보면 30-40대가 가장 친근감을 느꼈고, 10-20대와 50-60대가 30-40대 비해 친근감을 덜 느꼈다.

한류이후에 한류이전과 비교해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연령」과 「한국인의 친근감 정도(한류이후)」와의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표5를 보면 50-60대 이상으로 갈수록 친근감을 더 느끼고, 10-20대로 갈수록 친근감을 덜 느꼈다.

한류이전과 비교했을 때 한류이후에 「10-20대」는 친근감 쪽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친근감이 없는 쪽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30-40대」는 친근감 쪽으

로 소폭 상승했다. 「50-60대 이상」은 「친근감을 느낀다」가 18%에서 40%로 대폭 상승했고, 「별로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도 34%에서 9%로 대폭 감소했다. 한류로 인해 50-60대 이상과 10-20대의 일본인들에게 한국인에 대한 친근감을 많이 주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표6 한국인이 이웃으로 이사 온다면 (한류이전 · 한류이후)**

		한국인이 이웃으로 이사 온다면 (한류이전)					한국인이 이웃으로 이사 온다면 (한류이후)				
		한국인과 사이 좋게 지냄	한국인과 조금 사이 좋게 지냄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별로 한국인과 사이 좋게 지내고 싶지 않다	한국인과 사이 좋게 지내고 싶지 않다	한국인과 사이 좋게 지냄	한국인과 조금 사이 좋게 지냄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별로 한국인과 사이 좋게 지내고 싶지 않다	한국인과 사이 좋게 지내고 싶지 않다
연령	10-20대	18.4%	28.5%	50.6%	2.5%	0.0%	22.2%	39.2%	38.6%	0.0%	0.0%
	30-40대	35.6%	25.4%	35.6%	3.4%	0.0%	42.4%	23.7%	33.9%	0.0%	0.0%
	50-60대 이상	18.8%	31.9%	43.5%	4.3%	1.4%	33.3%	39.1%	27.5%	0.0%	0.0%
	전체	22.0%	28.7%	45.8%	3.1%	0.3%	29.0%	36.0%	35.0%	0.0%	0.0%

\*P<0.05

한국인이 이웃으로 이사 온다면 한국인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관해서 연령별로 관계를 본 결과(표6), 한류이전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관계없이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가장 많았고, 30-40대의 경우는 같은 비율로 「한국인과 조금 사이 좋게 지냄」이 많았다. 한류이후를 보면 두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는 「한국인과 조금 사이 좋게 지냄」이 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다」순 이었다. 「30-40대」는 「한국인과 사이 좋게 지냄」이 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34%로 많았다. 「50-60대 이상」은 「한국인과 조금 사이 좋게 지냄」이 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인과 조금 사이 좋게 지냄」 순이었다. 한류이전과 비교해 한류이후를 보면 전 연령대에서 한국인과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감소, 그리고 사이 좋게 지내고 싶지 않다는 1명도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서 주목할 수치는 「50-60대 이상」에서 「한국인과 사이 좋게 지냄」의 수치가 19%에서 33%로 큰 폭의 상승이다. 이 표6을 통해서 한류가 한국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50-60대 이상」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가 있다.

### (3) 한국관련 역사·정치·식문화에 관한 사항

지금부터는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서 국가 간의 관계가 되는 「한·일 관계」,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 「한국역사에 관한 관심도」, 「독도 소유권 문제 일본입장」에 관해서 보도록 한다. 연령에 따른 「한·일 관계(한류이전)」와의 관계를 보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의 경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와 「별로 양호하지 않다」가 거의 비슷한 수치로 가장 많았다. 「30-40대」의 경우는 「조금양호」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보다 근소한 차이로 가장 많았다. 「50-60대 이상」의 경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금 양호」와 「별로 양호하지 않다」가 같은 비율로 많았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양호」, 「조금양호」를 합쳐서 양호하다는 생각과 「별로 양호하지 않다」, 「양호하지 않다」를 합쳐서 양호하지 않다는 비교해 보았을 때 30-40대는 양호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10-20대와 50-60대 이상은 양호하지 않다는

표7 한·일 관계(한류이전·한류이후)

		한·일 관계(한류이전)					한·일 관계(한류이후)				
		양호	조금 양호	뭐라고 말할수 없다	별로 양호하지않다	양호 하지 않다	양호	조금 양호	뭐라고 말할수 없다	별로 양호하지않다	양호 하지 않다
연령	10-20대	0.7%	20.7%	35.7%	35.0%	7.9%	5.6%	50.3%	27.3%	14.7%	2.1%
	30-40대	9.8%	29.5%	27.9%	23.0%	9.8%	13.1%	44.3%	24.6%	16.4%	1.6%
	50-60대이상	2.9%	27.5%	33.3%	27.5%	8.7%	14.7%	48.5%	19.1%	13.2%	4.4%
	전체	3.3%	24.4%	33.3%	30.4%	8.5%	9.6%	48.5%	24.6%	14.7%	2.6%

\*P<0.05

의견이 많았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와 「별로 양호하지 않다」는 10-20대가 가장 많음을 알 수가 있다.

한류이후의 「연령」과 「한·일 관계(한류이후)」를 보면 둘 사이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관계없이 조금 양호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류이전과 한류이후를 비교해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없다」와 「양호하지 않다」는 의견이 「양호하다」는 의견으로 바뀐 것을 수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특히 50-60대 이상과 10-20대의 한류이전의 「양호」와 「조금양호」의 수치가 급증한 것을 볼 수가 있다.

표7을 통해서 전 연령이 한류로 인해서 한·일관계가 많이 호전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표8 한국 역사에 관한 관심도(한류이전 · 한류이후)**

		한국 역사에 관한 관심도(한류이전)					한국 역사에 관한 관심도(한류이후)				
		매우 흥미 있다	흥미 있다	뭐라고 말할수 없다	흥미 없다	전혀 흥미 없다	매우 흥미 있다	흥미 있다	뭐라고 말할수 없다	흥미 없다	전혀 흥미 없다
연령	10-20대	3.2%	22.3%	39.5%	22.3%	12.7%	5.7%	36.9%	30.6%	18.5%	8.3%
	30-40대	4.8%	29.0%	25.8%	30.6%	9.7%	6.5%	48.4%	21.0%	21.0%	3.2%
	50-60대이상	8.6%	32.9%	30.0%	18.6%	10.0%	13.0%	49.3%	27.5%	7.2%	2.9%
	전체	4.8%	26.3%	34.3%	23.2%	11.4%	7.6%	42.4%	27.8%	16.3%	5.9%

\*P<0.05

연령에 따른 일본인의 한국 역사에 관한 관심도를 보기로 한다. 「연령」과 「한국역사에 관한 관심도(한류이전)」를 표8과 같이 보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10-20대」의 경우,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40%로 가장 많았고, 「흥미 있다」와 「흥미 없다」가 각각 22%를 차지했다. 「30-40대」의 경우는 「흥미 없다」, 「흥미 있다」 순으로 각각 거의 30%를 차지했고,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많았다. 「50-60대 이상」의 경우, 「흥미 있다」가 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다」, 「흥미 없다」 순이었다.

다음은 한류이후의 「연령」과 「한국 역사에 관한 관심도」와의 관계를 보면 두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한류이후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흥미가 있었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흥미가 없었다. 한류이전과 한류이후를 비교해보면, 전 연령층에서 「흥미 있다」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흥미 없다」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류로 인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한국역사에 관한 관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표9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한류이전 · 한류이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한류이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한류이후)			
		왜곡이 있다	부분적 왜곡이 있다	왜곡은 없다	절대 왜곡은 없다	왜곡이 있다	부분적 왜곡이 있다	왜곡은 없다	절대 왜곡은 없다
연령	10-20대	7.0%	44.3%	25.9%	22.8%	10.8%	48.7%	21.5%	19.0%
	30-40대	20.0%	41.7%	21.7%	16.7%	15.0%	48.3%	20.0%	16.7%
	50-60대이상	14.1%	28.1%	45.3%	12.5%	15.9%	34.9%	39.7%	9.5%
	전체	11.3%	40.1%	29.4%	19.1%	12.8%	45.6%	25.3%	16.4%

\*\*P<0.01

그러면 한·일 관계에서 항상 마찰이 되고 있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관해서 보기로 한다. 표9와 같이 「연령」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한류이전)」와의 관계를 보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10-20대」의 경우 「부분적

왜곡이 있다」가 44%로 가장 많았고 「왜곡이 있다」와 「부분적 왜곡이 있다」를 합쳐 왜곡이 있다로, 「왜곡은 없다」와 「절대 왜곡은 없다」를 합쳐서 왜곡이 없다로 나눠 보면, 각각 51%, 49%로 거의 반반 이었다. 「30-40대」의 경우는 「부분적 왜곡이 있다」가 41%로 가장 많았고, 왜곡이 있다 없다로 나눠서 보면, 왜곡이 있는 쪽이 62%, 없는 쪽이 38%로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50-60대 이상」의 경우 「왜곡은 없다」가 46%로 가장 많았고, 왜곡이 있는 쪽과 없는 쪽으로 나눠서 보면, 있는 쪽이 42%, 없는 쪽이 58%로 없다는 의견이 더 많음을 알 수가 있다.

즉, 30-40대 일수록 일본 역사교과서가 왜곡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50-60대 이상 일수록 왜곡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강했다.

그리고 한류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전 연령이 한류이후에 왜곡이 있는 쪽으로 약간 증가해, 한류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가 있다.

표10 독도 소유권 문제 일본입장(한류이전 · 한류이후)

		독도 소유권 문제 일본입장(한류이전)					독도 소유권 문제 일본입장(한류이후)				
		매우 찬성	찬성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반대	절대 반대	매우 찬성	찬성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반대	절대 반대
연령	10-20대	10.8%	23.4%	63.9%	1.3%	0.6%	10.8%	24.7%	63.9%	1.3%	0.6%
	30-40대	8.9%	35.7%	51.8%	3.6%	0.0%	7.3%	38.2%	51.8%	3.6%	0.0%
	50-60대이상	13.8%	41.5%	38.5%	1.5%	4.6%	16.9%	36.9%	38.5%	1.5%	4.6%
	전체	11.1%	30.1%	55.6%	1.8%	1.4%	11.5%	30.2%	55.6%	1.8%	1.4%

\*P<0.05

\*P<0.05

표10과 같이 「연령」과 「독도 소유권 문제(한류이전)」와의 관계를 보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와 「30-40대」의 경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각각 64%, 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찬성」이 각각 23%, 36%를 차지했다. 「50-60대 이상」의 경우 「찬성」이 42%, 다음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39%로 가장 많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찬성 쪽이 많아졌으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많았다.

한류이후의 「연령」과 「독도 소유권 문제(한류이후)」의 관계를 보면 한류이전과 같이 한류이후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이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찬성」이 많았다. 한류이전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 쪽이 많아졌고, 연령이 낮을수록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많았고, 한류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거의 변화가 없었다.

즉, 한류로 인한 일본인의 한국인과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호전되었지만,

한·일 관계에서 항상 문제시 되는 독도 소유권 문제 등의 역사·외교적인 문제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1 한국요리 섭취도 (한류이전 · 한류이후)**

		한국요리 섭취도 (한류이전)				한국요리 섭취도 (한류이후)			
		자주 먹는다	가끔 먹는다	거의 먹지 않는다	전혀 먹지 않는다	자주 먹는다	가끔 먹는다	거의 먹지 않는다	전혀 먹지 않는다
연령	10-20대	5.7%	44.3%	34.8%	15.2%	7.0%	51.9%	30.4%	10.8%
	30-40대	21.0%	37.1%	37.1%	4.8%	23.0%	41.0%	31.1%	4.9%
	50-60대이상	7.1%	32.9%	42.9%	17.1%	13.0%	43.5%	31.9%	11.6%
	전체	9.3%	40.0%	37.2%	13.4%	11.8%	47.6%	30.9%	9.7%

\*\*P<0.01

\*P<0.05

다음은 「연령」과 「한국요리 섭취도 (한류이전)」와의 관계를 보면, 표11과 같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의 경우 「가끔 먹는다」가 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거의 먹지 않는다」가 35%였다. 「30-40대」의 경우 「가끔 먹는다」와 「거의 먹지 않는다」가 같은 비율로 각각 37%이고, 다음으로 「잘 먹는다」가 21%로 많았다. 「50-60대 이상」의 경우 「거의 먹지 않는다」가 43%, 다음으로 「가끔 먹는다」가 37%로 많았다. 「자주 먹는다」와 「가끔 먹는다」를 합치고, 「거의 먹지 않는다」와 「전혀 먹지 않는다」를 합쳐 먹는다 먹지 않는다로 나눠서 보면 섭취율이 「30-40대」가 58%, 42%로 섭취하지 않는 사람보다 약간 많았고, 「10-20대」는 각각 50%로 같았고, 「50-60대 이상」은 40%, 60%로 섭취하지 않은 비율이 더 많았다.

그러면 한류이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연령」과 「한국요리 섭취도 (한류이후)」와의 관계를 보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이 「가끔 먹는다」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거의 먹지 않는다」가 많았다. 섭취율은 30-40대가 가장 많았고, 50-60대 이상이 가장 적었다. 그러나 한류이전과 한류이후를 비교해 보면 섭취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50-60대 이상이 많이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다.

**표12 한국김치 선호도 (한류이전 · 한류이후)**

		한국김치 선호도 (한류이전)				한국김치 선호도 (한류이후)			
		매우 좋아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매우 싫어한다	매우 좋아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매우 싫어한다
연령	10-20대	31.8%	51.3%	13.0%	3.9%	33.1%	50.0%	13.0%	3.9%
	30-40대	28.3%	56.7%	15.0%	0.0%	31.7%	60.0%	8.3%	0.0%
	50-60대이상	24.2%	47.0%	25.8%	3.0%	25.0%	54.4%	17.6%	2.9%
	전체	29.3%	51.4%	16.4%	2.9%	30.9%	53.2%	13.1%	2.8%

표12와 같이 「연령」과 「한국김치 선호도 (한류이전)」와의 관계를 보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전 연령이 「좋아한다」가 50%전후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20대」와 「30-40대」의 경우는 「매우 좋아한다」 순이고, 「50-60대 이상」은 「싫어한다」가 26%, 「매우 좋아한다」가 24%로 비슷했다. 한류이후를 보면 전 연령이 「좋아한다」가 많고, 다음으로 「매우 좋아한다」 순이었다. 한류이전과 한류이후를 비교해보면, 10-20대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30-40대에서 50-60대 이상 순으로 약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 (4) 재일코리안에 관련된 사항

다음은 한류로 인한 일본인의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을 연령별로 보기 위해서 「재일코리안의 인식」, 「재일코리안의 친근감 정도」, 「주변에 재일코리안이 있다면 사이좋게 지낼 것인가」와의 관계를 보기로 한다.

재일코리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전 논문 황(2008)참조.

표13 재일코리안의 인식(한류이전 · 한류이후)

		재일코리안의 인식(한류이전)					재일코리안의 인식(한류이후)				
		매우 긍정	긍정적	관심 없음	부정적	매우 부정	매우 긍정	긍정적	관심 없음	부정적	매우 부정
연령	10-20대	5.9%	37.9%	51.6%	3.3%	1.3%	6.5%	49.0%	40.5%	2.6%	1.3%
	30-40대	9.1%	49.1%	32.7%	5.5%	3.6%	10.9%	61.8%	20.0%	3.6%	3.6%
	50-60대이상	1.6%	49.2%	44.4%	4.8%	0.0%	11.1%	66.7%	19.0%	3.2%	0.0%
	전체	5.5%	42.8%	46.1%	4.1%	1.5%	8.5%	55.7%	31.4%	3.0%	1.5%

\*P<0.05

표13의 「연령」과 「재일코리안의 인식(한류이전)」과의 관계를 보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의 경우 「관심 없음」이 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긍정적」이 38%, 「30-40대」와 「50-60대 이상」의 경우 「긍정적」이 각각 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심 없음」이 33%, 44%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재일코리안에 관해서 관심이 없거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면 한류이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연령」과 「재일코리안의 인식(한류이후)」과의 관계를 보면(표13),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관심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류이전과 한류이후를 비교해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매우긍정과 긍정적이 급증했고, 관심 없음은 대폭 감소했음을 알 수가 있다. 한편, 전 연령에서 매우부정이었던 수치는 전혀 변함이 없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50-60대 이상」의 경우 「매우긍정」이 2%에서 10%로 증가했으며, 「긍정적」도 49%에서 67%로 급증, 「관심 없음」도 45%에서 19%로 급감했다. 이것은 50-60대 이상의 사람들의 역사적인 요인과 배경으로 재일코리안에 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한류는 재일코리안의 이미지를 바꾸는 큰 계기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표14 재일코리안의 친근감 정도(한류이전 · 한류이후)**

		재일코리안의 친근감 정도 (한류이전)				재일코리안의 친근감 정도 (한류이후)			
		친근감을 느낀다	조금 친근감을 느낀다	별로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친근감을 느낀다	조금 친근감을 느낀다	별로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연령	10-20대	10.8%	28.7%	49.5%	9.8%	13.4%	45.2%	36.2%	5.1%
	30-40대	35.6%	33.1%	23.5%	10.5%	40.7%	39.1%	15.6%	3.4%
	50-60대이상	16.2%	27.9%	48.3%	7.6%	29.4%	54.9%	27.2%	2.9%
	전체	17.3%	41.2%	31.6%	9.9%	22.9%	60.4%	12.5%	4.2%

\*\*\*P<0.001

\*\*\*P<0.001

다음은 「연령」과 「재일코리안의 친근감 정도(한류이전)」와의 관계를 표 14를 통해서 보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10-20대」와 「50-60대 이상」의 경우 「별로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가 각각 50%, 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금 친근감을 느낀다」가 29%, 28%로 많았다. 한편 「30-40대」의 경우 「친근감을 느낀다」가 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금 친근감을 느낀다」가 33%로 많았다. 30-40대의 경우는 거의 70%정도가 한류이전에도 재일코리안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고 있었고, 다른 연령층에서도 「별로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와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를 합쳐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 쪽이 강했다.

한류이후의 「연령」과 「재일코리안의 친근감 정도 (한류이후)」와의 관계를 보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와 「50-60대 이상」의 경우 「조금 친근감을 느낀다」가 가장 많아서 각각 45%, 55%였다. 다음으로는 「10-20대」의 경우 「별로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가 36%, 「50-60대 이상」의 경우는 「친근감을 느낀다」가 30%로 많았다. 「30-40대」의 경우는 「친근감을 느낀다」와 「조금 친근감을 느낀다」가 거의 각각 40%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서 「친근감을 느낀다」와 「조금 친근감을 느낀다」를 합쳐서 친근감을 느끼는 쪽으로 보면 50-60대 이상이 85%, 30-40대가 80%, 10-20대가 58% 순이었다. 50-60대 이상, 30-40대, 10-20대 순으로 재일코리안에 대해서 친근감을 더 느끼고 있었다.

한류이전과 한류이후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별로 친근감을 느끼지 않던 사람들이 한류로 인해서 친근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한류이전과 다르게 50-60대 이상에서 가장 친근감을 보이고 있었다. 30-40대의 경우는 처음부터 친근감을 느꼈지만 한류이후 소폭 증가 한 반면에, 50-60대 이상의 경우는 별로 친근감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폭으로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한류이후 50-60대 이상의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재일코리안에 대한 이미지를 한류로 하여금 재인식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표15 주변에 재일코리안이 있다면 사이 좋게 지낼 것인가  
(한류이전 · 한류이후)**

		주변에 재일코리안이 있다면 사이 좋게 지낼 것인가 (한류이전)					주변에 재일코리안이 있다면 사이 좋게 지낼 것인가 (한류이후)				
		사이 좋게 지냄	조금 사이 좋게 지냄	뭐라고 말할수 없다	별로 사이 좋게 지내고 싶지 않다	사이 좋게 지내고 싶지 않다	사이 좋게 지냄	조금 사이 좋 게 지냄	뭐라고 말할수 없다	별로 사이 좋 게 지내고 싶지 않다	사이 좋 게 지내고 싶지 않다
연 령	10-20대	19.1%	33.8%	44.6%	1.9%	0.6%	22.9%	39.5%	35.7%	1.3%	0.6%
	30-40대	38.6%	24.6%	33.3%	3.5%	0.0%	43.1%	27.6%	27.6%	1.7%	0.0%
	50-60대이상	17.6%	29.4%	50.0%	2.9%	0.0%	30.9%	35.3%	32.4%	1.5%	0.0%
	전체	22.7%	30.9%	43.6%	2.5%	0.4%	29.0%	36.0%	33.2%	1.4%	0.4%

표 15와 같이 「연령」과 「주변에 재일코리안이 있다면 사이 좋게 지낼 것인가 (한류이전)」와의 관계를 보면 두 사이에 관련이 없었다. 「10-20대」와 「50-60대 이상」의 경우,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각각 45%, 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금 사이 좋게 지냄」이 34%, 29% 순이었다. 한편, 「30-40대」의 경우는 「사이 좋게 지냄」이 39%로 가장 많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33%로 다음 순이었다.

한류이후의 「연령」과 「주변에 재일코리안이 있다면 사이 좋게 지낼 것인가 (한류이후)」와의 관계를 보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와 「50-60대 이상」의 경우는 「조금 사이 좋게 지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순이었다. 반면에 「30-40대」의 경우는 「사이 좋게 지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금 사이 좋게 지냄」,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많았다.

한류이전과 한류이후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사이 좋게 지냄」과 「조금 사이 좋게 지냄」으로 변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구체적

으로 「사이 좋게 지냄」과 「조금 사이 좋게 지냄」을 합쳐서 사이 좋은 쪽으로 보면, 한류이전에는 저 연령순으로 53%, 64%, 47% 이었다. 반면, 한류이후에 63%, 71%, 66%로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수치를 보면 50-60대 이상의 경우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50-60대 이상의 경우 한류가 계기가 되어 재일코리안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재일코리안과의 사귄에 있어서도 많이 개방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실증데이터를 통해서 입증한 것이다.

## 4. 연령별 고찰

지금까지의 결과를 통해서 각 연령별로 특징을 각각 나눠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10-20대

10-20대는 한류이전에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한류이후에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0-20대의 경우, 한국을 전 세계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1988년 올림픽은 조사 시점으로부터 17년 전으로 10-20대에게는 유아시절로 관심을 줄 수 없었다. 한편, 2002년 한·일 월드컵은 5년 전 일로 한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첫번째 계기가 되었고, 또한 한류가 그들에게 한국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한 계기가 되어 한류이후에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무관심에서 관심을 갖게 한 큰 계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 2) 30-40대

30-40대의 일본인은, 한국인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부터 거의 모든 항목에 있어서 한류이전부터 다른 연령에 비해 두드러지게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에 관해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번째, 일본 법무성 출입국 관리 통계에 따르면, 1991년 출국자 수는 1063만 명 정도로 성별, 연령별로 보면 40대 남성이 170만 명, 다음으로 20대 여성이 165만 명으로 많았다. 이 시기 일본인의 해외 여행지 중에서 아시아 중 한국이 1위 인 것으로 나왔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출국자가 90만이나 되었으며, 1989년부터 대폭 출국자가 늘어, 1990년과 1991년에는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 시기는 일본의 버블경제에 따른 엔화가치가 급격히 상승한 시기로 일본인들의 해외여행이 가장 많은 시기 중 한 시기이다<sup>4)</sup>.

조사 연령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17년 전으로 40대 전후의 많은 여성들이 한국에 다녀 온 것으로 알 수가 있다. 매스컴 등의 간접적으로 한국을 경험했던 이들은 직접적인 여행을 통해서 한국의 1988올림픽 이후의 발전된 모습, 쇼팽, 한국음식, 한국문화 등의 여러 가지 한국의 실질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나쁜든, 한국 이미지를 한류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었다.

두번째, 정(1999)의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이미지의 제3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제3기는 1984년부터 1995년경으로, 이 시기는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을 문화적·오락적·대중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때는 해외도향 자유화에 따른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수와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수가 많았다. 한·일 상호교류가 시작되어, 이문화로서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무서운 나라’ ‘불쌍한 나라’에서 ‘보통 나라’ ‘발전한 나라’로 인식해, ‘이문화로서의 한국’으로 변화한 것으로, 이 시기의 영향이 30-40대에게 많이 미쳤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조사의 30-40대의 연령층에 있어서는 각 항목에 있어서 한류이전이나 한류이후가 크게 차이가 없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등, 여러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보였다고 생각되어진다.

### 3)50-60대 이상

50-60대 이상은 한류이전에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한류이후에는 급격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변화를 정(1999)의 제1기와 제2기에 의하면, 제1기는 일본이 패전한 1945부터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된 1965년까지로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관점은 매우 부정적 이었으며, 그것은 한반도에 사는 코리안 보다는 재일코리안에 대한 결과였다. 그리고 한국에 관해서는 무관심과 관심회피로 여겨졌다. 제2기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부터 1984년까지의 약 20년 동안으로 이 시기의 한국은 일본인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관심은 고양되었지만, 매력이 없는 나라였다. 가정이나 이웃 사이에서 소곤거리는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 거기에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되풀이된 남북한의 상호비방과 중상모략 등이 일본인에게에는 이웃나라에 대한 무관심과 관심회피를 지속화 시켰다.

4) 장부영(1995) 「관광 한국의 미래를 위한 일본인의 해외여행 동향분석」, 최고관리자 과정 논문집,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pp. 138-139.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구스노키 조사에서, 일본인 학생의 여러 민족에 대한 호감도에서 1939년에는 5위를 차지했으나, 일본이 패전한 이후인 1949년에는 15위로 가장 비호감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패전 전에 조선인과 공유하고 있었던 운명공동체의 상실과, 패전 후 일본 사회에서 이루어진 조선인의 행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으로 설명했다<sup>5)</sup>. 그 조선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돌아갈 경비가 없어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국을 못한 조선인들은 일본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의 차별과 제약되는 요소가 많았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나쁜 소행을 일으키는 재일조선인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사회현상 때문인지 정(1999)은 일본인들에게 ‘무법’ ‘악당’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 당시 일본인이 조선인이란 말에서 연상한 이미지는 몇 년 전 일본 통치 아래에 있었던 한반도의 조선인에 대한 이미지라기보다 재일조선인에 대한 이미지였을 것으로 생각했다. 1949년 조사에서 한국인은 ‘불결하다’ ‘문화적으로 저급하다’ ‘교활하다’ ‘일본을 업신여긴다’ ‘일본을 증오했다’ ‘추악하다’ 등의 이미지였다. 또한, 1960년대 한국인의 이미지로 와가쓰마와 요네야마 조사에서, ‘불결’ ‘교활함’ ‘비굴’ ‘무례’ 등으로 이 시기도 일본인이 한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시기에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했다. 이 시대를 피부로 접하며,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부모세대에게 전해들은 50-60대 이상의 일본인들은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수가 없었다. 그 과거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평생 살아온 그들에게 한국의 1988올림픽이나, 2002년 한·일 월드컵은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한류열풍을 일으킨 겨울연가를 통해서 한국 사람의 부드러운 이미지, 그들을 통한 본인이 예전에 느꼈던 향수 등이, 그들의 마음을 녹이게 되었고, 한국의 이미지를 재인식 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변화된 인식이 재일코리안에도 영향을 미쳐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도 바꿀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다.

## 5. 결론

이상으로 한류로 인한 일본인의 한국인과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변화를 연령별로 나눠서 관련성을 보았고, 또한 한류이전과 한류이후도 나눠서 차이를

5)정대균(1999) 『일본인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강 pp.17-35.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연령별로 「한국의 관심정도」에 있어서 관련이 보여져, 한류 붐을 경험한 지금 시점에서 50-60대 이상이 가장 관심이 많았고, 다음이 30-40대 순이었다. 또한, 「한국 관심 시점」과의 관계에서도 관련성이 보여져, 10-20대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겨울연가 순이었다. 30-40대는 겨울연가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이후 순이고, 50-60대 이상은 겨울연가 시청이후, 1988 올림픽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이후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 연령에 관련 없이 대부분이 한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70% 이상이 한류의 의미를 한국드라마 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류의 관심정도」를 보면 연령과 관련성이 나타나, 50-6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40대, 10-20대 순이었다.

다음은 「연령」과 「한국인 인식」·「한국인의 친근감 정도」·「한국인이 이웃으로 이사 온다면」·「재일코리안 인식」·「재일코리안의 친근감 정도」와의 관계를 본 결과, 한류이전에는 「한국인 인식」·「한국인의 친근감 정도」·「재일코리안의 친근감 정도」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국인이 이웃으로 이사 온다면」·「재일코리안 인식」에 있어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이후의 관계를 보면, 연령과 위 5개 항목에 있어서 전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한류이전에는 다른 연령에 비해 30-40대가 눈에 띄게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한류이후에는 30-40대보다 10-20대와 50-60대 이상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50-60대 이상의 경우는 관심 없던 사람들이 위 5개 항목에 있어서 급격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고 있음을 수치를 통해서 확인 할 수가 있었다. 즉, 한류로 인해서 전 연령대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특히, 50-60대 이상이 한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과 「한·일 관계」·「한국 역사에 관한 관심도」·「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독도 소유권 문제 일본입장」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한류이전에는 「한·일 관계」·「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독도 소유권 문제 일본입장」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30-40대의 경우는 한국의 입장에서 다른 연령대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 역사에 관한 관심도」에 관해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한편, 한류이후를 보면 「한국 역사에 관한 관심도」·「독도 소유권 문제 일본 입장」에 있어서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역사는 50-60대가 많은 관심을 보였고, 독도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는 한류이전과 한류이후가 변함이 없었으며, 50-60대의 경우 오히려 완고하게 느껴져, 한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일 관계」·「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있어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은 연령과 음식에 관련된 항목과의 관계를 본 결과, 한류이전 「한국요리 섭취도」에 있어서는 관련성이 나타나, 30-40대가 가장 자주 섭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치 선호도」에 있어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이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이후에도 「한국요리 섭취도」는 변함없이 30-40대가 가장 많이 섭취했으며, 「김치 선호도」에 있어서도 한류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각 연령별로 특징을 보면, 한류를 통해서 10-20대는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30-40대는 긍정적에서 더 관심으로, 50-60대는 무관심 또는 내재적인 부정적에서 많은 관심으로 변화된 것을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서 고찰 할 수가 있었다. 즉, 일본사회에 있어서 한류가 한국·한국인·재일코리안의 이미지를 연령별로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며, 특히, 과거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한국에 대해서 극도로 보수적인 50-60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 【参考文献】

- 김준숙·김광태(2005)「일본 한류를 통한 한국인 이미지 변화의 양상」, 인문과학연구 10, 카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23-48.
- 신원선(2005) 「일본의 한류열풍 주도 드라마에 관한 연구」, 한민족문화연구17, pp.211-234.
- 손진원(2004) 「일본에서의 한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일본연구 12, pp.34-52.
- 장부영(1995)「관광 한국의 미래를 위한 일본인의 해외여행 동향분석」,최고관리자과정 논문집,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pp.137-143.
- 정대균(1999) 『일본인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강, pp.17-35.
- 채예병(2006)「한류가 한국관광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정책학연구12-1, pp.63-77.
- 허종욱(2006) 「한류 문화관광객의 소비지출구조에 관한 연구-삼척시 방문 일본인 관광객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0-2, pp.319-334.
- 히라타유키에(2005), 『한국을 소비하는 일본: 한류, 여성, 드라마』, 책세상, 158p.
- 호사카유지(2005)「일본에서의 한류 붐 고찰」, 계명대학교 국제학논총 10, pp.49-59.
- 황혜경(2008)「한류로 인한 일본인의 한국인과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식 변화-관서지방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36, 한국일본문화학회, pp.451-467.

## 要旨

本稿は韓流による日本人の、韓国・韓国人・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認識の変化を年齢別にわけて関連性をみた。さらに、それを韓流以前と韓流以後に分けて、その差異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

その結果、韓国と韓流の関心度においては、50-60代以上が一番関心が多く、次は30-40代、10-20代順であった。また、韓国への関心視点をみると、年齢別に違う結果が出た。そして、年齢と韓国人の認識・韓国人の親密感・韓国人と仲良くするか・在日コリアンの認識・在日コリアンの親密感との関係を見た結果、韓流以前には韓国人の認識・韓国人の親密感・在日コリアンの親密感においては関連みられ、韓国人と仲良くするか・在日コリアンの認識においては関連がみられなかった。また、韓流以後には上記の5項目において全部関連がみられた。その結果、韓流以前には他の年齢と比べて30-40代が目立つほど肯定的に出た。一方、韓流以後には30-40代より10-20代と50-60代の方がさらに変化された。特に、50-60代以上の場合、興味がなかった人たちが上記の5項目において、急に肯定的に変化することが数字からとられた。

また、年齢と韓・日関係・韓国歴史の関心度・日本歴史教科書歪曲問題・独島所有権問題の日本立場において関連性を見た結果、韓流以前には韓日関係・日本歴史教科書歪曲問題・独島所有権問題には関連性がみられ、30-40代の場合、他の年齢より韓国の立場で肯定的にみられた。しかし、韓国歴史の関心度においては関連がみられなく、年齢別に差はみられなかった。一方、韓流以後をみると、韓国歴史の関心度・独島所有権問題の日本立場においては関連みられ、韓国歴史は50-60代が興味深く、独島所有権問題においては、他の項目と違い、韓流以前と韓流以後が変わらず50-60代以上の方が頑固であって、韓流の影響を全然受けてないことがわかった。そして、韓・日関係・日本歴史教科書歪曲問題においては、年齢別に関連がみられなく、全年齢においての差はみられなかった。

最後に年齢と韓国料理摂取度・キムチ摂取度との関連を見た結果、韓流以前には関連がみられ、30-40代が韓国料理をよく摂取することになり、キムチにおいては関連がみられなかった。韓流以後にも韓国料理においては関連がみられ、同じく30-40代がよく摂取され、またキムチの場合は関連がみられなく、韓流以前と韓流以後の差がみられなかった。

以上のような結果から年齢別の特徴を考えると、日本社会の韓流による韓国・韓国人・在日コリアンにおいて、日本人の10-20代の場合は無関心から関心に、30-40代は肯定的イメージからさらに関心に、50-60代は無関心あるいは内在されている否定的イメージから急に関心に変化したことが今回の調査の数字からとられた。

キーワード： 韓流、年齢、韓国、日本人、韓国人、在日コリアン、認識、韓・日関係

투 고 : 2009. 5. 31

1차 심사 : 2009. 6. 13

2차 심사 : 2009. 6. 27